

소프트웨어로 자동차 미래 연다

현대차그룹, 2025년까지 모든 차종 'SW 중심 자동차'로 대전환

현대자동차그룹이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DV, Software Defined Vehicle)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까지 모든 차종에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1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차량 플랫폼과 통합 제어,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종에 무선(OTA, Over-the-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본 적용할 계획이다.

2025년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을 적용해 고객들이 늘 최신 상태의 차를 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전기차뿐 아니라 내연기관차도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개발해 현대차그룹의 전 차종이 소프트웨어 기술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모빌리티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객이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법규에 맞춰 차량의 성능을 개선하고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면서 차량의 잔존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SDV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현대차그룹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가입한 차량이 올해 말 기준 1000만대에서 2025년 200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커넥티드 카에서 생성하는 빅데이터를 통해 기존에 없던 가치와 가능성을 만들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구독 등 고객마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차세대 공용 플랫폼 개발 등 SDV 전환 박차=현대차그룹은 차세대 공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기성 집중형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제어기를 통합해 SDV 전환에 본격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SDV 개발을 위해 공용화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차량에 적용하고, 이에 따라 기획, 설계, 제조 등 일련의 양산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새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2025년 승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M과 PBV 전용 전기차 플랫폼 eS를 적용한 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eM은 모든 전기 승용차 차급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가 현재의 전기차 대비 50% 이상 개선된다. 또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적용 및 무선 업데이트 기본화 등을 목표로 한다.

eS는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유연한 구조로 개발돼 배터·배속과 차량호출 등 기업 간 거래(B2B)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M과 eS 플랫폼은 현대차그룹의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IMA, Integrated Modular Architecture) 체계 아래 탄생할 예정이다. IMA는 전기차 핵심 부품을 표준화 및 모듈화한 개발 체계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개발 전기차 모델마다 별도 사양이 반영되는 배터리와 모터를 표준화해 차급별로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 제어기 최적화-고사양 운영체제 자체 개발=통합 제어기에 최적화된 고사양의 커넥티드 카 운영체제 ccOS(Connected Car Operating System)도 지속 고도화한다.

자체 개발한 ccOS는 모든 제어기에 공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고도의 컴퓨팅 파워를 통해 하드웨어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커넥티드 카가 생성하는 대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연결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차 생애주기의 각 단계별 데이터가 어떤 과정으로 생성되는지 분석,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개발해 외부 사업자도 차량 서비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 및 숙박을 비롯한 다양한 이종 산업과도 제휴할 계획이다.

◇새로운 도전-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설립=특히 현대차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2025년까지 전 차종 무선 업데이트... 성능 개선·다양한 기능 탑재 차세대 공용 플랫폼 개발... 기획·설계·제조 등 양산 과정 시간 단축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설립... 자율주행 가능 모빌리티 생태계로

로 수집·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반도체도 필요하다. 현대차그룹은 인공지능(AI) 컴퓨팅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NVIDIA)와 협업해 고성능 정보 처리 반도체인 엔비디아 드라이브(NVIDIA DRIVE) 하드웨어를 ccOS에 탑재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래픽 인지 및 처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엔비디아 드라이브는 빠른 속도로 대용량의 데이터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 현대차그룹은 2015년 엔비디아와 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커넥티드 카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고성능의 반도체를 탑재해 고객이 빠르고 끊임 없는 차량 내 소프트웨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자동차 데이터 가공·혁신 서비스 창출=현대차그룹은 자동차의 설계, 생산, 판매, 운행, 중고 거래 등 차량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데이터를 서로 결합 및 가공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역시 진행 중이다.

그룹이 지향하는 데이터 플랫폼은 단순히 자동차의 주행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의 모든 라이프 사이

클라우드 연결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차 생애주기의 각 단계별 데이터가 어떤 과정으로 생성되는지 분석,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개발해 외부 사업자도 차량 서비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 및 숙박을 비롯한 다양한 이종 산업과도 제휴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이 밝힌 '소프트웨어 하우스'의 구조도.

클라우드 연결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차 생애주기의 각 단계별 데이터가 어떤 과정으로 생성되는지 분석,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개발해 외부 사업자도 차량 서비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 및 숙박을 비롯한 다양한 이종 산업과도 제휴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클라우드 연결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차 생애주기의 각 단계별 데이터가 어떤 과정으로 생성되는지 분석,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개발해 외부 사업자도 차량 서비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 및 숙박을 비롯한 다양한 이종 산업과도 제휴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이외 플랫폼을 공용화하면 차급과 관계없이 부품

GGM 누적 생산 5만대 돌파

매달 캐스퍼 4000대 생산... 캐스퍼 밴 등 선택 폭 넓혀 판매 호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이 누적 생산 5만대를 돌파했다.

GGM은 지난해 9월 15일 현대차의 '캐스퍼' 양산을 시작한 뒤 1년 1개월 만인 지난 15일 총 누적 생산 5만대를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2000대에 이어 올해 3만8000대를 생산한 것으로, 올 한해 생산 목표인 5만대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GGM은 지난 달 20일 창사 3주년을 맞아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토대를 마련했고, 이후 차질 없는 생산을 이어오고 있다.

GGM은 매달 평균 4000대 이상의 캐스퍼 차량을 생산 중으로, 캐스퍼의 인기가 계속됨에 따라 GGM의 생산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여기에 2024년 하반기부터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병행 생산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캐스퍼 출시 이후 '캐스퍼 밴'과 지난 6월 캐스퍼 신규 트림 '디에센셜'이 출시돼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판매 호조가 계속돼 GGM의 생산량도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GGM의 생산량 증가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박광태 GGM 대표이사는 "모든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양산 13개월 만에 누적 생산 5만 대를 돌파했다"며 "이를 계기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상생의 문화를 더욱 정착시키고 최고 품질을 확보해 올 생산 목표 달성은 물론, GGM이 세



캐스퍼 신규 트림 '디에센셜'

계 최고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GM은 전기차 생산 준비에 나서 오는 2024년 하반기 전기차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전기차 생산 일정에 맞춰 2고대 인력을 확보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SUV 돌풍

1~3분기 국내 61만8000여대 판매... 비중 60% 돌파 눈앞

올해에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돌풍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SUV는 수익성을 노린 제조업체와 코로나 사태로 변화한 소비자 심리에 힘입어 올해 국내 판매비중 6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7일 카이즈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국내에서 팔린 레저용 차량(RV) 포함 SUV 대수는 총 61만8384대로 집계됐다.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세단(34%) 등 다른 차종을 크게 앞섰다.

2017년 40%가량이었던 SUV 판매 비중은 2018년 43%, 2019년 46%, 2020년 49%, 2021년 54%로 꾸준히 늘고 있다. 매년 비중이 감소하는 세단과 대조적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런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SUV 판매 비중이 6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기간 판매 '톱2' 모델도 SUV가 세단보다 많았다.

비록 1위는 현대차 세단 그랜저(5만441대)가 차지했지만 20위 가운데 SUV 모델은 13개에 달했다. 기아 쏨렌토, 카니발, 스포티지가 나란히 2, 3, 5위를 차지했고 현대차 팰리세이드, 캐스퍼, 아이오닉5가 이름을 올렸다. 르노코리아차 QM6, 쌍용차 렉스턴스포츠도 포함됐다.

특히 쏨렌토는 1위 그랜저를 21대 차이로 근소하

게 뒤따랐다. 전통적으로 세단이 선호되던 우리나라에서 무게 중심이 확실히 SUV로 쏠리고 있는 셈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총 등록 승용차 중 세단 비중은 66%다.

이런 SUV 인기는 제조사 전략과 소비자 선호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국내 제조사와 수입차 판매사들은 최근 '믹스'(차종별 구성비율) 개선을 목표로 수익성이 높은 SUV 인자를 집중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또 아이오닉5, EV6 등 전기차도 대부분 SUV로 출시됐다.

기술 발달로 단점으로 지적되던 승차감이 크게 개선된 것도 SUV 인기 이유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사태로 차박(차에서 숙박) 관심이 높아진 것도 SUV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SUV 인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며 "먼저 제작사 영업전략인데 차량용 반도체 이슈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SUV 판매에 집중할 전략이 한몫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SUV 성능이나 승차감이 크게 개선돼 국내에서 강했던 '세컨드카' 이미지도 희석됐다"며 "코로나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여행이 활성화한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지원사업 실시

금호타이어는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를 대상으로 진로적성검사, 진로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금호타이어-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발한

50명의 초·중학생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이들은 진로적성검사를 통해 목표, 성취 등 항목에 대한 역량 측정받고, 전문 상담가가 제공하는 진로컨설팅을 받게 된다. 또 과목별 EBS 교재를 비롯해 온라인 멘토링 및 교육 컨텐츠 등도

제공받게 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청년들이 진로 멘토링을 통해 스스로의 강점을 찾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나가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며 "금호타이어는 현재의 방향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